

TKFEA-e NEWS LETTER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최근 비 소식이 잦아졌습니다.

초여름 장마철 시작이 체감되는 요즘,

나무의 녹색도 한층 더 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연일 쏟아질 빗줄기에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간 쌓였던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빗줄기에 말끔히 씻어버리길 바랍니다.

CONTENTS 2023+Vol 04



02 6월 주요활동 및 소식

제3차 인사위원회 개최, "임시직 일반직 전환"
23년 산림기술 민간위탁사업 실무협의회 실시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월간 보고서
산림청 '아이라브 우드' 챌린지 참여
산림경영기능·녹지조경 전문과정 운영



04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치산녹화 과거 50년, 미래 50년

06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근로자]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울진군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10 한국산림기술인회 인터뷰 코너

동국기술단 부사장 겸 한국산림기술인회 충북지회 지회장



13 이제는 생태복원의 시대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임태원 교수

16 읽을거리

업무분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산림 헤드라인 뉴스
초성퀴즈 정답발표
빈칸맞추기 이벤트
법령정보
뱀물림·벌쏘임 사고



24 공지사항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 이용자 설문조사
한국산림기술인회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

한국산림기술인회 이번달엔 어떤일을?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3차 인사위원회 개최, “임시직 일반직 전환”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6월 7일 ‘2023년도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원무 인사위원장과 박광진, 오점곤, 전용준, 임학진, 송승의 인사위원 등 총 7명이 참석해 기술인회 임시직 직원 일반직 전환 추진에 대해 심의 후 가부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인사위원회는 서면의결 병행으로 진행됐다.



23년 산림기술 민간위탁사업 실무협의회 실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6월 8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23년 산림기술 민간위탁사업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는 기술인회 위탁사업본부 직원 3명과 산림일자리창업팀 담당자 2명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기술법정교육 이수 안내서비스 개선, 산림기술정보체계시스템이용 민원편의기능 구현사항논의 등으로 이뤄졌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월간 보고회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지난 6월 8일 ‘23~24년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월간 보고회(5월)’를 열고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발급 시 변경사항 및 업종별 구현 등 출력 기능 개선과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 기능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했으며, 기술인회 위탁사업본부 직원 3명, 산림일자리창업팀 담당자 2명, 수행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산림청 '아이러브 우드' 챌린지 참여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이 지난 6월 14일 기후변화시대 속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목재이용을 촉진하는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날 정병천 회장은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목재를 이용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탄소중립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주관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오는 9월 말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제1기 2023.06.19 ~ 06.23

녹지조경 전문과정

- 교육장소 :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광역시 서구 안밭대로 809, 6층 (사학연공회관))
- 교육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실시간교육)
- 모집인원 : 240명 (온라인220명, 오프라인20명)
- 신청방법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 www.tkfeaeu.com
- 대상자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림사업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사업주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 교육비 : 248,500원
- 문의사항 : 1533-5160 (3번 교육문의)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제2기 산림경영기능과정

- 교육장소 : 한국산림기술인회 (대전광역시 서구 안밭대로 809, 6층 (사학연공회관))
- 교육일정 : 2023.6.12 (화) ~ 6.16 (금) / 5일, 35시간
- 교육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실시간교육)
- 모집인원 : 240명 (온라인220명, 오프라인20명)
- 신청방법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 www.tkfeaeu.com
- 대상자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림사업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사업주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
- 교육비 : 248,500원
- 문의사항 : 1533-5160 (3번 교육문의)

'산림경영기능·녹지조경 전문과정' 운영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이 법정 의무교육인 '제2기 산림경영기능 과정' 과 '제1기 녹지조경 전문과정'을 개강·운영했다. 산림경영기능과정은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녹지조경 전문과정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으며, 각 과정당 5일간 총 35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사업주에게 소속돼 근무하는 산림기술자가 대상인 이번 교육과정은 실시간 화상 강의로 진행됐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리 빛내

한국치산기술협회·한국산림공학회 공동주최...‘치산녹화 과거 50년, 미래 50년’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이 지난 6월 22일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치산녹화 과거 50년, 미래 50년’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치산기술협회와 한국산림공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전 호텔CC에서 진행됐으며, 산림 관련 각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모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원장과 기술인회 업무분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의 박길동 회장, 이사인 한국산림공학회 임상준 회장,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자문위원으로 있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규태 회장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 앞서 정병천 회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은 차담회를 갖고 치산녹화와 산림녹화 등 지속 가능한 산림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는 ▲개회식 ▲치산녹화 기념 영상 ▲치산녹화 유공단체·유공자 감사패 수여 ▲기조강연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주제발표는 산림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연설자로 나서 산림녹화 정책 50년, 사방사업 발전 되돌아보기, 지속 가능한 치산기술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해 열린 행사에 참석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우리 기술인회도 산림분야 발전과 더불어 산림기술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 현장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이 차담회에서 주요 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과 업무분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의 박길동 회장이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차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이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장 앞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차산기술협회와 한국산림공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행사장 전경.



행사장 입구에 한국차산기술협회와 한국산림공학회의 소개와 각 협회의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산림사업 분야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개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6월 9일까지 대면 진행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김명환)이 산림사업 분야 관리감독자의 중대재해 예방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에 힘쓴다. 교육원은 지난 6월 8일「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인 ‘2023년 4차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과정’을 대면으로 개강했다. 산림 관련 사업장 등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라 하며, 사업장에서는 이들의 통제 안에 작업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현장 상황과 관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이 필수다. 이에 이번 교육과정은 관리감독자 직무수행 능력 강화와 안전보건관리 내실을 다지고 중대재해 예방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강사진은 산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산림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틀간 총 16시간 동안 진행했다.



‘산림작업 및 산림안전 사고 예방’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근골격계 질환 등 예방에 관한 교육

교육 첫날은 산림작업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등 예방, 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표준 안전 작업 방법 및 지도 요령 등을 교육했다. 마지막 날은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심리치료 및 사고 시 응급처치 실습 등을 실시했다. 특히 산림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 더불어 교육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실습을 통해 참여율과 관심도를 높였다. 또 향후 산림사업 분야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권역별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록 외래교수
근골격계 질환 등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요령에 관한 교육



허미라 외래교수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심리치료 실습

교육에 참여한 단양국유림관리소 박광서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안전에 있어 중대재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알게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산림분야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인 만큼 임업현장 안전의 한 단계 상승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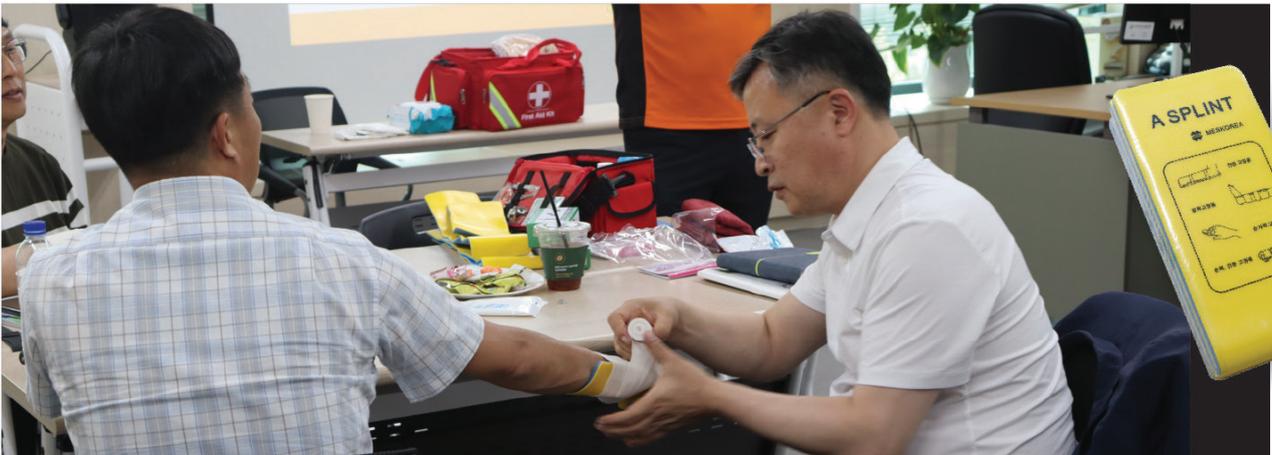
차윤영 외래교수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사고 시 응급 처치, 응급 시 처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제로 교육

안전보건교육 들여다보기

01 멸균거즈와 탄력붕대 응급 시 처치방법 실습에서 붕대감는법 시범을 보이고 이에 맞춰 교육생들이 붕대를 팔에 감아보고 있다.



02 알루미늄 부목 응급 시 처치방법 실습에서 교육생들이 서로 도와 알루미늄 부목을 착용하고 붕대를 감고 있다.



03 트위스트 지혈대 지혈밴드 교육생에게 직접 트위스트 지혈대 지혈밴드(실습용)를 착용시키고 있다.



– 산림 특화 안전보건 교육 제공 –

울진군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김명환)이 산림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림 특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교육원은 지난 6월 13일 울진군청 소속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근로자 91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 울진군 구수곡자연휴양림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열렸으며, 교육생들이 산림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림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했다. 강의에서는 산림작업 안전 사례를 소개하는 등 예방대책과 재해율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해 교육생들의 열띤 반응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교육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산불피해지 긴급 벌채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여러 형태의 산림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 요소와 아차 사고에 대한 안전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안전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잠재적 위험이 없는 산림사업 현장 안전 확보를 목표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중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이번 교육에

참여한 울진군청 소속 근로자들은 사업주 주도하에 TBM(Tool Box Meeting) 자기규율 예방 체결 방식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TBM은 산림사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참여해 작업 전 준비 및 유해, 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위험요소 감소 대책 수립을 공유하는 위험 예방훈련 방식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산림사업 현장 유해 및 위험요인을 찾아 안전사고 발생 전 해결책을 마련하고 안전 문화의식을 고취하며, 나아가 산림사업 산업재해 안전 저감대책에 동참한다. 이처럼 산림사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은 산림 분야 현장 안전 관리 우수 사례로 전파돼야 한다. 아울러 교육원은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림안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콘텐츠 마련해 안전 인식 전환을 도모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후 한 교육생은 “산림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급상황 시 대처 방법에서 평소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산림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이번 교육이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울진군 소속 담당자와 산림현장 안전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팀장, 반장님 노고에 산림현장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기술단 부사장 겸 한국산림기술인회 충북지회 지회장
한상범 산림기술사 인터뷰

산림 현장은 매번 다른형태로 위험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산림사업 현장에서도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산림 사업장들의 부담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산림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처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해 사고 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며, 산림사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국기술단 부사장 겸 한국산림기술인회 충북지회 지회장인 한상범 산림기술사를 만나 산림사업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간단한 소개와 동국기술단에서 맡은 업무

저는 충북 충주 동국기술단에서 방재사업부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주된 업무로 산림분야 설계·감리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림사업은?

현재 산림사업 중 숲가꾸기의 풀베기 사업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조림 후 1~3년 차 임지에 대해 조림목 보호 및 생육 촉진을 위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법 취지는 중대재해를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소 과한 징벌적 사항이 있다는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관리자의 관심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 기본적인 안전장구 착용 후 작업 진행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사업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작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현장 대리인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Q. 산림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산림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작업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변화 및 차이에 의해 평소와 다른 루틴으로 순간의 방심 또는 부주의가 사고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Q. 산림사업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 마련됐으면 하는 제도는?

산림 시공 현장은 다른 산업현장과 달리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신속한 환자 이동이 어려워 사고 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 인력을 늘리고, 안전대책 등에 대한 추가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나라의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973년 국토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식재한 나무들을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작한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나라의 산림의 건전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인 훌륭한 산림정책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잘 가꾸진 산림은 단순한 목재 생산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휴양, 치유 등 다양한 방향으로 산림이용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면적당 단가로 행해지던 숲가꾸기사업이 사업 대상지별 사전조사 및 설계 제도로 전환되면서 과거보다 현실적인 시행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해 연도 사업 계획과 사업비가 면적 단가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 적절한 작업공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 설계를 통한 사업 대상지 및 시공 예산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산림기술자들에게 한마디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일선 사업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임하시는 산림 근로자나, 현장대리인, 감리원들은 매일 현장이 비슷하다는 매너리즘이 있을 수 있는데, 실상 산림 현장은 매번 다른 형태로 위험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장 관리, 작업 지도 등에 임해 줬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임목수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국산 목재 생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목재 자급률은 15%로, 즉 우리나라에서 소모되는 목재의 15%만을 국내 생산 목재를 통해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림청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순수하게 목재 생산을 위한 벌채면적은 14,768ha로 전체 산림면적의 6,298천ha의 0.23%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불량한 임지를 개선하기 위한 수종갱신용 벌채면적 5,670ha를 포함해도 2022년 벌채 면적은 20,438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0.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산 목재 질이 현저하게 낮아 생산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임목수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임목수확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산림소유자들의 적극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는 벌채사업자들의 주민 민원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임목 수확 기피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가중된다고 봅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탄소 고정을 위해서는 산림 및 목재의 활용성이 중요하며, 공기 중 탄소 고정률은 임목을 통한 고정 효과가 전체의 95%에 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량한 목재 생산을 통해 생산된 목재가 가구재 등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사용돼 탄소가 고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신규 조성된 조림지에서 공기 중 탄소를 흡수 고정해 임목의 성장 즉 체부인 셀룰로오스를 형성하는 과정이 탄소를 고정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우량한 임목의 임목수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가구재 등 탄소고정 효과가 높은 부분에 사용되도록 적극 권장하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제는 생태복원의 시대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임태원 교수

지구에 생명의 탄생과 더불어 나타난 수많은 생물종들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커다란 지구 생태계를 유지시켜 왔다. 그러나 인류의 탄생을 시작으로 생태계는 급속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어 왔다. 지구 생태계에 인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자연환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인간에 의한 훼손과 파괴의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인간에 의해 훼손되고 파괴되어 사라진 자연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복원’이다. 그러나, 훼손되고 파괴된 자연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파괴되어 사라지는 자연을 다시 되살리려는 노력은 인류의 미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자연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꿀벌의 감소를 인류의 생존과 연계하고 있다. 꿀벌의 터전인 자연은 인류의 생존과 더 큰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 중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육상생태계는 산림이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은 육지 면적의 31%를 차지하는 약 40억ha로 육상 생물 다양성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세계 산림은 복원된 산림면적을 제외한 순수 감소면적은 남한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178백만ha가 감소되었다. 연간순산림손실은 1990년 ~ 2000년에 780만ha, 2000년 ~ 2010년 520만ha, 2010~ 2020년 사이에 470만ha로 감소 추세는 완화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아 있는 원시림은 약 10억ha가 존재하며 주로 브라질, 캐나다 및 러시아의 3개국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20억ha 이상(54%) 산림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되고 있다. 특히 유럽 산림의 96%가 관리 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25% 미만, 남아메리카는 20% 미만으로 산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양한 산림이 다시 복원되고 이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산림의 양과 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 산림 내에 서식하는 생물종다양성의 손실은 산림생태계의 기능과 산림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능력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산림의 지속적인 보존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았다.

산림의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원 면적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또한 필요하다. 먼저 복원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정 및 과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복원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복원의 순서에 따른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원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응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복원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복원의 명확한 목표 및 진행 방향
2. 복원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
3.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복원 사업
4. 복원지의 다양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전략 지역(복원 핵심지역) 설정 및 과정
5. 복원 계획 및 과정의 효율성 향상
6. 복원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개선

산림생태계는 인위적인 요인이 가해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훼손되고 파괴된 부분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복원력' 또는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온대림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는 경우 산불, 산사태, 벌채, 경작 등 다양한 인위적, 자연적 훼손 이후 인간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어 가는 생태적 천이(ecological succession)가 진행된다. 아무것도 없는 나지에 초본과 관목류가 유입되고 양수 수종이 우점하는 단계를 거쳐 음수 수종이 유입되어 혼효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극상림에 도달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수백 년에서 그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숲은 인간에 의해 훼손되고 파괴되었다가 자연적인 천이과정 또는 인위적이 복원의 노력으로 다시 숲으로 회복된 곳이 많이 존재한다. 인위적인 복원 노력으로 조성된 숲은 생태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차 안정적인 구조로 변화되는 생태적 천이에 의해 점차 그 지역에 적합한 잠재 자연식생(potential vegetation)으로 변화되어 간다.

복원의 전반적인 과정은 산림생태계 관리를 통해 자연적인 회복 능력의 극대화를 끌어내고, 인위적인 인간의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복원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원 대상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복원 이후 모니터링에 따른 생태적 관리가 없다. 더불어 복원이 제대로 시작되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복원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또한 생태복원사업이 '생태'라는 접두어만 붙여진 개발사업으로 변질되거나 개발사업의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생태복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및 평가 절차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성공적인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성격을 토대로 주제(복원 대상), 질(서식 환경평가), 공간(서식지 면적이나 공간 배치), 시간(사업 기간)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생태복원사업은 생물 다양성 증진, 친수공간 조성, 자연경관 창출, 재해 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회복을 위한 서식지 보전·조성을 전제하고 있다.

생태복원사업은 「무엇을, 「어디에, 「어느 정도」와 함께 「얼마 동안」 복원·창출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생태복원사업은 복원하고자 하는 「주제」 × 「공간」 × 「질」 × 「시간」을 복원 목적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환경포럼 제4권 10호). 이렇듯 산림 생태복원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많은 복원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산림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 중 식생기반 복원을 위해서 기존의 다양한 사방기술이 접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방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사방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림 생태 복원 기술의 발전과 업역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산림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림기술자에게 산림 생태복원의 업역은 더없이 넓은 업역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진1. 산림 훼손지 유형(11개 유형)>

현재 백두대간 및 정맥을 비롯하여 도시 해안지역, 산불발생지 등이 복원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훼손지들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지역, 공단지역 등 새롭게 복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대상지역도 있다. 생태복원 사업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이미 되어 있다.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한 단계 더 산림분야 사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생태복원사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산림기술자가 필요하다.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분명한 산림분야의 큰 업역이다. 이 업역을 이끌고 나갈 주인이 되시길 바란다.

01 한국조경협회 한국조경협회 '조경사 제도 도입 위한 세미나' 개최

월간 조경기술 세미나 일환...한국조경가협회·한국조경학회 공동 개최



한국조경협회가 지난 5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조경사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조경협회 '2023 월간 조경기술 세미나'의 일환으로 한국조경가협회, 한국조경학회와 공동 개최했다. 총 4부로 실시된 행사에서는 현행 조경설계 자격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해외 조경설계 자격제도와와의 비교 ▲조경사 자격제도의 신설 제안 ▲조경학 교육인증제의 필요성과 방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이후에는 '조경사 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와 박명권 그룹한어소시에이트 대표,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 최원만 신화건설당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에서 박명권 대표는 "조경가협회는 정부에서 인정한 라이선스가 없어 지원을 못 받고 회원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경사 제도는 조경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경사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경협회는 오는 6월 30일 조경설계 내 정원(자생)식물 도입을 위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02 전국 국유림영림단 협회



산림청과 대책 간담회...산림 안전사고 사항 공유

전국 국유림영림단 협회가 지난 5월 24일 산림청과 대책 간담회를 갖고 산림 사업장의 안전사고 관련 사항과 각 지회, 지방청별 현안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중 전국협회장과 5개 지회 회장단, 산림청 산림자원과장, 숲가꾸기 담당 주무관, 5개 지방청 자원조성 팀장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2023년 2분기 전국 정기 이사회' 개최

전국 국유림영림단 협회가 지난 6월 14일 충북 옥천에서 '2023년 2분기 전국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전국협회 사무장 근무연수에 따른 복리후생 지원책, 전국 국유림영림단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 행사 준비, 지회별 특별경비, 안전보건 물품 공동 구매, 영림단장 단체복 제작 등을 의결사항 안건으로 상정해 결의했다.

03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감사선거...허순규·이봉찬 후보 당선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가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감사 선거(임시총회)를 실시한 가운데 허순규·이봉찬 후보자가 최종 당선됐다. 한편 이번 감사 당선자 임기는 23년 7월 15일부터 25년 7월 14일까지다.

산림 헤드라인 뉴스

FOREST HEADLINE NEWS

- 01** 산림청, 취사 행위 등 7~8월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출처: 연합뉴스
- 02** 산림청, 나무병원 운영 부담 완화...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 출처: 뉴시스
- 03** 함양서 벌목하던 60대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출처: 연합뉴스
- 04** 민통선에 퍼진 생태계교란식물 '단풍잎돼지풀' 대대적 제거 작업 출처: 뉴스1
- 05** 한국임업진흥원대전 1차 이전...임업기술실용화센터 신축 개관 출처: 충남일보

정답 발표 초심 퀴즈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은 무엇일까요?

정답

안 전 보 건 교 육



TKFEA-e뉴스레터 제4호 EVENT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과 함께하는

빈칸 맞추기 이벤트



2023. 6. 23.(금) ~ 7. 21.(금)

Q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 자질향상, 권익보호, 산림사업의 품질관리를 통해 국가 산림기술진흥(연구·개발사업 등)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빈칸은 무엇일까요?

Hint

스 리 기 사 스

이벤트 기간

2023년 6월 23일(금) ~ 7월 21일(금) 자정까지

참여 대상

2023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당첨자 발표

2023년 7월 31일(월)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추첨 통해 당첨자 5명 증정)

참여 방법

한국산림기술인회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게시물에 정답 댓글 달기



이벤트 접속 QR

*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 시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산림관련 법령정보

최근 일부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정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www.tkfea.or.kr) [열린마당] - [자료실] -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QR ※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 시 법령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목재이용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3호, 2023. 5. 16., 일부개정]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단판, 섬유판, 목재펠트 등을 추가하고,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를 함께 명시해 수입신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둘 이상 목재생산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해 시설 유지 부담을 줄이고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것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둘 이상 목재생산업자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 목재생산업자는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4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선택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부터 적용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일부개정]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시책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개정이유

위험성평가 제도를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 제시, 평가시기 명확하게 상시평가 신설, 근로자 참여 확대 등 그간 미흡한 점 개선.

▶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단계 중 사전준비 단계와 위험성 결정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를 보장(제6조)

각업종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시적 주지 등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제13조)

출처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8호, 2023. 6. 8., 일부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숲경영체합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합림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총합배치도(축적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숲경영체합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
5. 산림경영계획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23. 6.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0호, 2023. 6. 12., 일부개정]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중전에는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확대해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전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림기술운영업자 소속 산림기술사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면적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림사업법인 등 경영부담 줄인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림사업법인 등 산림사업자에 대한 경영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자원법 시행령」은 산림사업법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 종류를 추가 등록 시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고,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의 50% 경감 및 기존 시설(사무실) 중복을 인정합니다.

특히 종묘생산업자는 업무정지 시 생산 중인 묘목의 폐기처분으로 조림용 묘목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조림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영세업자의 경우 경제적 손실로 폐업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에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종묘생산업자의 업무정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생태·경관·재해 등을 고려한 친환경 벌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 벌채 시 산림소유자에게 주는 지원금의 기준과 절차 등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산림위성 개발 및 산림위성 지상국 구축·운영이 추진돼 산림위성 관측망을 활용한 산림자원 관리, 산림재해 방지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산림사업법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 및 산림소유자 손실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 (시행령 제25조)

-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의 종류를 추가 등록 시 기존 시설(사무실) 중복 인정
-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의 50% 경감 및 기존 시설(사무실) 중복 인정

업무정지로 인한 중요생산업자의 부담을 경감 (시행령 제 13조의3)

- 중요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시행
- 현행 업무정지 → 개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 과징금 = 중요생산업자의 1일 평균매출액 × 영업정지일수 × 0.13 (적정과징률)

친환경벌채시 산림소유자들의 손실 지원 (시행령 제42조의2)

- 지원대상** 친환경벌채*를 실시한 산림소유자로서 벌채구역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
 - * 친환경벌채란 목재수확시 생태보호·경관유지·재해위험 최소화 등을 위하여 일정 면적의 입목을 벌채하지 않고 남겨두는 방식
- 지급한도** 벌채구역 내 총 나무의 양(입목축적)의 100분의 20이하
- 지원금 지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시·군) → 현지조사 실시 및 지원금액 산출 → 지원금 지급

산림위성 관측망을 활용한 산림자원 관리, 산림재해 방지 추진 (시행령 제31조의2)

- 산림식생변화 관측주기 단축(5일 → 3일), 산림재난관리(예방, 대응, 복구) 실시간 지원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제도 도입

여름철 산림작업 시 주의하세요!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뱀물림·벌쏘임 사고



뱀·벌 많은 산림 작업 현장...응급처치법 꼭 알아두세요!

여름철 무더위로 뱀과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은 산림 작업 현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벌 쏘임과 뱀 물림 진료 환자는 각각 1만 1095명, 30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산림작업은 야외활동이 많고 작업 중 뱀과 벌 등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로 인한 재해율이 높습니다.

뱀과 벌에 물렸을 시 '한 방쯤은...'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쇼크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벌에 쏘이고 뱀에 물렸을 때를 대비해 꼭 알아둬야 할 응급처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벌에 쏘였을 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벌에 쏘인 위치에서 벗어나기
벌침은 카드나 동전으로 밀어서 즉시 제거
벌침 제거 후 찢린 부위 비누와 물로 씻기

☑ 뱀에 물렸을 때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
환자를 눕힌 후 뱀독이 전신으로 퍼지지 않게 안정
물린 부위는 깨끗한 물로 씻고 팔과 다리의 경우 깨끗한 천으로 묶기

☒ 이런 행동은 안 돼요!

상처 부위가 가려워도 감염 위험성이 있어
상처 부위는 긁으면 안 돼요!

입을 통해 독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독을 빨아내면 안 돼요!



☑ 독충 및 독사 피해 줄이려면

야외 외출 시 밝은 색상 옷 피하고 긴옷 입기
곤충 주의 고는 향수 및 화장품 사용 자제
등산화와 같은 두꺼운 신발 착용
지팡이나 막대기 이용해 뱀의 유무 확인

☑ 벌 쏘임·뱀 물림 사전 예방하려면

평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항히스타민제 '에피네프린'
주사제 처방받아 야외활동 전 허벅지에 주사 놓기



에피네프린 주사란?

평소 알레르기가 있다면 벌에 물리거나 벌에 쏘였을 때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몸에서 급격히 쇼크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현상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피네프린 주사 투여가 필요합니다. 이 주사는 혈청병, 두드러기, 쇼크 및 발작 완화에 도움을 주며 심장 박동 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에 물리거나 벌에 쏘였을 때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발생한다면 휴대용 에피네프린을 허벅지 바깥쪽에 자가 주사한 뒤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경험자는 사전에 병원에서 처방전을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에피네프린 주사 투여법

- 1** 에피네프린 주사기를 주사부위인 검은 끝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한 손으로 잡습니다.
- 2** 반대편 손으로 안전핀인 노란 뚜껑을 당겨서 빼냅니다.
- 3**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 검은 끝으로 허벅지 바깥쪽을 수직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 까지 세게 누르고 10초간 유지합니다.
- 4** 10초 후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를 허벅지에서 떼고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주사부위를 10초간 문지릅니다.
- 5** 벌에 쏘이거나 벌에 물린 후 에피네프린을 주사했다면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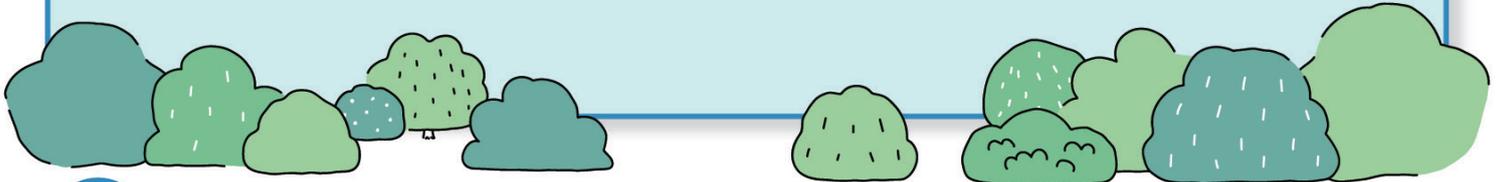


2023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목으로써 기초역학의 이해, 사면안정해석 등 전문교육과정

1일차 정역학, 토질역학, 유체역학 **2일차**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습교육 진행

- **대 상** 산림기술자, 단체기관 실무자
- **일 시** 8월 중 (2일간) ※ 교육일정 확정시 추후 개별 연락
- **교육비** 250,000원
- **신청방법** 수시모집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 www.tkfeadu.com
- **장 소** 대전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 **문의전화** 1533-5160



산림기술자 법령이무교육



전문

실시간 강의 온라인 오프라인

제 2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

접수 2023.09.08(금) 까지 tkfeadu.com에서 신청

일시 2023.09.11(월) ~ 09.15(금)

장소 대전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전문

실시간 강의 온라인 오프라인

제 2기 산림경영기술 전문과정

접수 2023.09.15(금) 까지 tkfeadu.com에서 신청

일시 2023.09.18(월) ~ 09.22(금)

장소 대전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재구축 관련

이용자 설문조사

기 간 2023. 05. 19.(금) ~ 06. 30.(금)

저희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산림 및 임업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 대표자의 남다른 경영철학과 기술 및 사업을 소개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업체 운영에 있어 경영방침, 목표, 핵심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정회원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회원은 업체명과 간단한 소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내부 검토 후 선정해 다음 호 뉴스레터에 담을 계획입니다. 업체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shekdms@tkfea.or.kr)

결과발표 선정 업체는 개별 연락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가 있을 시 042-489-85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변경신고·휴폐업신고 공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소통광장 -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tkfea.or.kr

회원동정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원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언제나 등록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tkfea.or.kr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권익보호, 산림기술진흥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자 합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을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언제나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담당자] 노다운 사원 / E. shekdms@tkfea.or.kr / T. 042-489-8551

작은 소식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